

송년사

영진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

2018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무술년의 금년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책무를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를 되돌아 보면 국내경기 전반에 걸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미확정과 더불어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여건속의 한 해 였습니다.

당사 역시 2018년도 수주와 매출 실적에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당사만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 모든 업계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근무한 지난 1년을 다시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쌓이고 후회와 반성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영진에 있고, 그 도전을 임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의 기대와 더불어 경쟁자들이 여러 어려움과 함께 우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 오는 현실을 극복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진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은 대외적 환경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된 마음으로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여 나가면 영진의 미래와 도전은 반드시 성공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진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

대망의 2019년도에는 영진과 함께 할 미래비전 달성에 도전해 가는 꿈을 꾸면서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영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청훈

